

“성폭행 누명 부실수사 최소한 사과라도 해야”

3년 옥살이 중 무죄 판결 김씨...담당 수사관 진급 소식에 분통 고향 떠나온 지 2년 “출소 후 첫 성묘...트라우마 벗어났으면”

“수사기관이 항상 옳을 수만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수를 했거나 잘못했다면, 또 그로 인해 한 사람의 인생이 파탄났다면 최소한의 사과는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경찰과 검찰 등 공권력의 부실 수사로 누명을 써 성폭행범으로 몰려 3년여 옥살이를 하다가 무죄로 풀려난 김민수(63·가명)씨(광주일보 2020년 12월 16일 6면)의 올해 설맞이 ‘소망’이다.

“가족들의 희생과 노력으로 누명을 벗어 자유의 몸이 됐지만, 어느 누구에게도 ‘미안하다’거나 ‘잘못했다’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몸은 자유롭지만 마음은 아직도 교도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자 무고죄까지 씌워놓고도 미

안하다는 말 한마디 하기가 그렇게 어려울까요?”

전남경찰과 검찰이 총체적 부실수사로 애꿎은 시민에게 누명을 씌워 옥살이를 시켜놓고도, 아직까지도 사과나 유감 표명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지역민들의 비난이 거세다. 수사기관도 잘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용기 있는 사과’로 김·경이 지역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씨는 지난 2016년 1월, 지적장애가 있는 미성년자 A양과 그의 고모부·고모의 악의적 거짓진술에 성폭행범으로 몰렸다. 그는 수사과정에서 수백 번 결백과 의혹을 주장했지만 오히려 상대방에 대한 무고죄까지 뒤집어 써, 무려 징역 6년형을 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그의 결백을 믿은 세명의 딸

들이 아버지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마을 주민 200여 명을 직접 만나 결백과 관련된 증언을 받아 내, 3년여 만에 무죄로 풀려났다.

출소 이후 그에게 누명을 씌운 사람들이 지난해 10월 처벌받으면서 김씨는 올해 설맞이 차례상을 차리는 설다운 설을 보내게 됐다. 그동안은 성폭행범으로 보는 주위의 눈초리 탓에 외부활동도 하지 못했다.

김씨는 성폭행범으로 낙인이 찍히면서 친구와 친척들과도 단절됐으며,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도움을 요청했던 마을 사람들도 손가락질을 받은 기억에 아직도 트라우마를 이겨내지 못하고 있다. 결국 그는 견디다 못해 그동안 살았던 시골을 떠나 서울로 이사를 한 상태이다. 상경한 지도 벌써 2년이 됐지만 아내와 세 딸을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다고 한다.

방안에 틀어박혀있던 김씨가 트라우마를 벗기 위해 출소 후 처음으로 설 차례상을 차리고, 성묘도

할 예정이다.

이제 김씨의 유일한 소원은 부실 수사를 했던 경찰과 검찰로부터 진정어린 사과 한마디를 듣는 것이다.

김씨는 “현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지만 재판 과정에서 수사기관들은 오히려 잘못을 인정하기 보다는 당시 철저한 수사를 진행했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라면서 “오히려 최근에는 사건을 담당할 경찰 관계자 중 일부는 진급까지 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그는 또 “직관과 경험만을 내세운 수사로 애먼 사람을 간단히 성폭행범으로 만들었으면서도, 사과는 뭐가 그리 어려운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26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억울한 옥살이를 한 김씨가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의 최종변론 기일이 진행되고, 다음 기일에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전남도민 생활체육 활성화 학교시설 사용료 80% 감면

전남 지역 주민이 초·중·고등학교 시설을 생활체육 용도로 사용할 경우 기존 정해진 사용료의 80%를 감면받게 된다.

3일 전남도의회 김길용 의원에 따르면 도의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시설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개정 전 조례안에는 ‘학교체육 및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 활용 등으로 사용될 시는 사용료의 80%를 감면할 수 있다’고 돼 있었는데 개정 조례안에는 ‘80%를 감면해야 한다’고 강제 조항으로 규정했다.

김길용 의원은 “학교·체육 종목별 전차별인 학교시설 개방 사용료 징수제도를 즉각 개선해 15만 생활체육 동호인을 비롯한 도민들이 광명하게 이용하도록 보장하고, 사용료에 대한 부담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전남 공공도서관은 변신 중

랜선 배움터

광주교육청 통합도서관 전자잡지 열람 서비스 개통

광주시교육청 통합도서관이 장소와 시간에 상관없이 비대면 방식으로 전자잡지를 열람할 수 있는 전자잡지 서비스를 개통했다.

3일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에 따르면 코로나 19 장기화로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이용자를 위한 전자잡지 구독시스템을 구축했다.

시교육청 통합도서관 홈페이지 내 전자도서관에 접속, 시사·교육·문화·취미 등 각 분야 215종의 전자잡지를 열람할 수 있다.

전자잡지 서비스는 시교육청 통합도서관 회원이면 PC와 모바일을 통해 누구나 이용 가능

하다.

이용자들은 카테고리별 잡지를 한눈에 볼 수 있으며, 키워드를 통한 관련 기사 검색을 통해 방대한 정보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학습참고 도구로도 활용 가능하다.

이광순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관장은 “언택트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독서환경 조성을 위해 전자잡지 구독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비대면 방식의 최신 정보 제공이 가능해져 지역 주민과 이용자들의 정보 이용 요구에 부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문화 놀이터

전남교육청 공공도서관, 미래형 정보 있는 복합문화공간 모색

전남교육청 공공도서관들이 책 중심의 전통 도서관 기능에서 벗어나 공감과 공유의 ‘지역 사회 문화놀이터’로의 변신을 꾀한다.

전남도교육청은 지난 2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산하 22개 공공도서관 관장 회의를 갖고 공공도서관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도 교육청은 이날 공공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복합적 문화놀이터’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사람 중심의 복합문화공간 조성 ▲개인과 지역공동체의 동반성장 지원 ▲미래형 정보서비스 구현 등 3대 추진전략과 세부 실행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의 참석자들은 지난해 코로나19 상

황에서 추진했던 ‘공공도서관 공간 혁신’, ‘공공도서관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 ‘지역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운영’, ‘학교 연계 독서문화 프로그램’ 등의 우수사례를 공유한 뒤 교육청과 토론·협의의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또 지역의 현황과 어려움에 대해 진솔하게 논의하고 지역사회의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공공도서관을 만들어 가자고 뜻을 모았다.

장석웅 전남도교육감은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교훈은 ‘변화’이다”면서 “시대가 바뀌면 도서관도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울 설엔 고향 방문 자제하세요 설 연휴를 일주일 가량 앞둔 3일 오전 광주시 북구청 외벽에 고향 방문을 자제하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걸려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광주대 8년 연속 선정 25일까지 초기창업팀 모집

광주대학교가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광주·전남권역 창업지원 기관에 8년 연속으로 선정됐다.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은 국고를 지원받아 초기창업팀을 모집해 창업공간과 창업자금 지원, 멘토링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자원연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사후관리 등 사회적기업 창업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광주대는 오는 25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해 사업내용에 따라 팀당 1000만 원부터 최대 5000만 원까지 차등 지원될 방침이다.

사회적기업을 지속해 운영할 의사를 갖고 창업을 준비하는 초기창업팀을 모집 마감 기준으로 창업을 하지 않았거나 2년 미만의 창업팀이면 참여가 가능하다. 또한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을 목표로 하고, 3인 이상 팀을 구성해 신청하면 된다.

지난 2014년부터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시작한 광주대는 2015년과 2018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으로부터 각각 ‘우수지원기관상’을 수상하며 창업 교육 명문대학으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2020년까지 총 111개의 창업팀을 육성, 인증 사회적기업 18개 팀을 비롯해 지역형·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65개 팀을 배출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올리고 있다.

신청 접수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접속창구 (<http://www.seis.or.kr>) 접속 또는 광주대 사회적기업사업단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신세계안과 의/학/상/식 **톡톡**

백내장 오인하는 익상편, 원인과 치료

- 익상편이란?**
 익상편은 주로 안구의 내측 결막(흰자위)에서부터 각막(검은동자) 쪽으로 섬유혈관조직이 증식되어 침범, 진행하는 질환을 말합니다. 익상편은 ‘군날개’라고도 하며, ‘백태’가 낀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 증상**
 흰색의 섬유혈관성 조직이 검은자를 덮기 때문에 미관상 보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미용상 문제가 되는 것 외에 문제는 없으나, 간혹 심한 경우 난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진행이 많이 되어 동공(애기동자)까지 침범했을 경우에는 시력장애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피곤하고 눈이 자극받으면 충혈이 유난히 심해지기도 합니다.
- 치료**
 익상편으로 인해 생기는 여러 증상에 따라 증상의 호전을 위해 약물치료를 합니다. 그렇지만 약물치료로 익상편 자체를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각막을 많이 침범하지 않은 대개의 경우는 경과 관찰만 하면 되고, 진행이 많이 돼 동공 근처까지 침범한 경우에는 시력보호를 위해 수술로 제거하게 됩니다.
- 수술방법**
 익상편 수술은 국소마취로, 약 30분 정도면 끝납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 통증과 이물감이 있을 수 있으며 약 한 달간 간헐적인 통원치료를 해야 합니다. 수술 시기의 결정은 동공까지 익상편이 침범했을 경우에는 바로 수술을 시행하여야 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환자들의 생활에 얼마나 지장을 주느냐를 고려해서 결정합니다.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 신세계안과 1566-9988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선정

大山 프리모 남녀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1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특수가발 별매 (윈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기술. 1만명 이상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사
등급제품 130만원
59만원~

광주 남구 주월동 1199-12 라인가든아파트 상가 2층(대광여고 옆)
062.673.5858 (모발모발)